

진달래 능선

Azalea Ridge of the Mt. Samgaksan



글 | 洪鍾震
(Hong, Chong Jin)

농어업토목기술사,
한국농촌개발연구소 이사, 수필가.
E-mail : hong37@empal.com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산에 올라 진달래 꽃을 꺾어 오고 풀도 베고 나무도 하던 버릇이 나를 등산을 좋아하게 만들었나 보다. 봄이면 풀을 베어다가 논에도 넣고 소꼴을 베어다가 소를 먹였던 기억이 새로워진다. 한 여름에 소꼴을 베러갔다가 왼팔에 옷이 올라고 생고생 했던 일이 생각난다. 내 고향은 천마산 밑에 산명수려한 조그만 마을이다. 여름이면 얼음보다도 더 시원한 맑은 물가에 모여 앉아 고기 잡아 끓여 먹으며 놀던 어린 시절의 일들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젊은 시절에 등산반원을 따라 설악산, 지리산, 월악산, 치악산 등 좋다고 하는 산들을 가보기도 했지만 집에서 가깝고 시간도 많이 안 걸리는 북한산만한 산이 없는 것 같다.

건강도 체크할 겸 백운대를 매년 몇 차례씩 오르곤 한다. 옛그제 집사람하고 북한산 대동

문을 다녀왔다.

4.19공원 앞을 지나 백련사를 거쳐 가파른 깔딱 고개로 올라갔다. 나뭇잎이 무성하지는 않지만 등산로 양쪽엔 녹음이 짙어 햇볕을 가려 뜨겁지는 않았다. 숨이 턱에 바치도록 경사가 급해 올라가는 사람마다 숨소리가 커지고 숨이 무척 가빠지는 것 같았다.

깔딱 고개는 오만방자한 인간들의 심리를 시험하는 듯 초입부터 단숨에 기를 죽인다. 올라가는 산행길은 하늘을 찌를 듯 경사가 급해 올라가기엔 멀기도 하고 힘에 부쳤다.

앞서 올라가는 사람의 뒷모습을 보면 언제 저 사람들을 따라 올라갈까 하는 생각을 하며 뒤따라 걸어간다. 숨이 턱에 닿아 넘어갈 지경에 다다른 하늘이 뺨 뚫린 것같이 진달래 능선 초입에 다다른다.

여기가 진달래 능선 정상이다. 산길 양옆에 진달래꽃이 만발하여 걷는 이로 하여금 고운 진달래꽃에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지천으로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진달래꽃은 산행인의 마음을 즐겁게 하여 주고 하루의 피로를 풀어준다.

바위고개 노래에도 나오는 진달래꽃은 우리 민족과는 아주 친근감을 주는 꽃이다. 가난했던 시절에는 구황(救荒) 식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던 꽃이다.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참꽃이라고도 한다. 진달래꽃과에 속하는 철쭉꽃은 독성이 있어서 먹을 수가 없어 '개꽃'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진달래꽃은 철쭉꽃과에 속하기는 하지만 향가 '헌화가' 에서도 등장하고, 유명한 정송강(鄭松江)의 '관동별곡(關東別曲)' 에서도 그 이름을 찾아볼 수 있는 꽃이다. 요즘은 가로(街路)의 단장, 아파트

의 환경미화를 위해서 사용되는 꽃들이 대부분 영산홍이라 조금은 씁쓸한 감이 든다. 영산홍은 진달래꽃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개량된 품종인데 진달래꽃과 철쭉꽃의 중간 시기쯤에 꽃이 핀다. 이상하게도 진달래꽃은 비극적인 이미지를 주는 꽃이다. 진달래꽃의 한문 명칭은 두견화(杜鵑花)이다. 이름이 그렇다 보니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당하여 자기 고향에서 쫓겨나서 돌아올 수 없음을 한탄하여 '불여귀(不如歸)'를 읊어대는 '두견새'의 이미지가 전이된 까닭일까?

진달래꽃하면 무엇보다 소월의 시가 떠오른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영변에는 약산이 있고, 약산에는 동대(東臺)가 있다고 한다. 그 동대의 진달래가 매우 아름다워 그걸 두고 소월은 진달래꽃을 읊은 것이라 한다. 1922년 <學生界>에 발표된 진달래꽃의 시 전문을 여기에 옮겨본다.

나 보기가 역겨워 / 가실 때에는 /
 말없이 고히 보내 드리우리다 / 영변에 약산 /
 진달래꽃 /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
 가시는 걸음걸음 / 놓인 그 꽃을 /
 사뿐히 즈려 밟고 가시옵소서 / 나 보기가 역겨워 /
 가실 때에는 /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이 진달래 능선은 초입새부터 힘들게 하여 산행인의 마음을 단숨에 알도록 하는 좋은 시범코스인 것 같다. 능선에 올라와 걸으면 약간의 오르내리는 곳은 있으나 비교적 걷기에 편안한 산길이다. 마치 한자의 고진감래(苦盡甘來)와 똑같은 격이라고나 할까.

이 진달래 능선은 대동문으로 가는 길 중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코스 중에 하나이다.

능선을 따라 가다보면 북한산이 오른쪽으로 보인다. 인수봉(仁壽峰), 백운대(白雲臺), 만경대(萬景臺)를 합하여 부르는 산의 이름이 북한산이다. 이 거대한 세 봉우리가 삼각뿔 같이 보여서 삼각산이라고 불렀는데 일제의 강점기에 일본인에 의해서 북한산이란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요즈음 강북구청에서는 이 북한산 이름을 삼각산으로 바로 고치자는 운동을 전개하며 공공기관인 강북문화예술회관이라는 이름도 삼각산문화회관으로 변경하고 주민들에게도 대대적인 홍보도 하는 중이다.

매년 진달래 능선을 갔었지만 이번과 같이 꽃이 만발할 때 가보는 처음이다. 가는 길도통이마다 탐스럽고 붉게 핀 진달래꽃은 김소월의 영변 약산에 진달래꽃을 보고 아름다워 읊었다는 그 꽃보다 더 아름답게 느껴졌다.

대동문에서 아카데미 하우스 방향으로 하산을 하였다. 능선으로 험한 길이 있어 등산하는 사람들을 위해 매어 놓은 철제 로프를 잡으면서 내려와야 했다. 내려오는 길이라 조금은 수월했으나 오를 때 같았으면 깔딱 고개 보다 훨씬 힘들었을 것이다.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얼마 안 되는 거리에 한 주점에서 팔고 있는 도토리묵과 동동주 한 잔으로 킬킬한 목을 축이니 송강 정철선생의 시(詩)인 장진주사(將進酒辭)의 한 구절이 생각난다. “한잔 먹세 그려 또 한잔 먹세 그려 꽃 꺾어 수를 놓고 무진무진 먹세 그려”라는 시구이다. 그리고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베개를 베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가 이만하면 족하도다라고 하는 옛 노래를 불렀다.

<원고 접수일 2008년 8월 1일>